

범국회의 유래와 거창 용산범국회의 전개

박 기 용*

- I. 시작하며
- II. 중앙절과 범국회
- III. 동계 정온과 용산범국회
- IV. 동계 이후의 범국회 활동과 의의
- V. 마치며

국문초록

重陽節 범국회의 유래는 2-3세기 경 중국에서 사람들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경덕왕 때(765) 중앙절 기록이 처음 나타났다. 고려시대에는 문인들이 국화를 은일과 절조의 의미로 표현하였고, 조선시대 16-17세기에는 절개의 이미지로 정착되었다.

용산범국회를 결성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다. 동계의 정치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에 동조하는 사족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는 점, 62세 때 모친상을 당하여 1630년부터 용산 선영 아래서 시묘할 때 후학을 지도하며 학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 모인 사람들이 친족이거나 인척으로서 혼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1636년 9월 9

*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pkynare@naver.com

일에 落帽臺에서 5개 고을의 士族 21명이 용산범국회를 결성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 동계가 모리재에서 은거하다 생을 마치자 용산범국회 모임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후손들의 婚脈과 학문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泛菊會 재개 움직임은 1898년부터 있었다. 조선의 국내외적 정국이 혼란하고 국권을 침탈하려는 외세의 위협에 회원의 재결속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 재개의 동기였다. 그래서 1900년에 續契하였고, 1941년에는 모임을 하고 회원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회원이 모두 405명이었다. 1996년에 등록된 회원 수는 643명으로 늘어났고, 거주지는 嶺南 지역 중심에서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확산되어 친목 모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용산범국회는 정치사적 공동체의 성격, 관계공동체의 의미, 역사문화적 공동체의 성격, 1996년 이후는 은 친목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현재는 회원 수가 늘고 거주지가 확대되면서 회원 간의 학연·혈연 의식은 줄어들었으나 선조를 추모하는 마음은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다.

◆ 주제어

동계, 남명학과, 용산범국회, 중앙절, 학맥과 혼맥

I. 시작하며

16세기 말~17세기 초 거창현의 유림문화 중심지는 가조 原泉과 龍山이었다.¹⁾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원천정에서는 의병장 金沔을 위시한 제장이 통문을 인근 각 지역으로 보내 모병을 하고²⁾ 무력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때 桐溪 鄭蘊(1569~1641)은 24세에 부친 鄭惟明(1539~1596)을 따라 김면 장군 막하에서 종군하였다.

임란 후 1630년에 모친상을 당하자 용산에 장사지내고, 묘아래서 시묘하다가 1632년에 龍泉精舍가 완공되고³⁾ 삼년상이 끝난 뒤에도 자주 이곳을 찾아 머물며 후학을 양성했으니 이 무렵 거창의 유림문화는 용산에서 다시 꽃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동계가 68세였던 1636년 9월 9일에 다섯 郡의 선비 20명과 용산 落帽臺에 모여 泛菊會를 조직하고, 매년 한 번씩 이곳에서 契會를 갖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해 12월 병자호란 이후 동계가 사망하자 용산범국회는 중단되었고, 이 모임이 다시 續契된 것은 1900년 후손들에 의해서였다.

본고에서는 범국회의 유래와 거창 용산범국회가 다시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이 지역 士族의 관계 유지 방식과 그 의의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도달점으로 삼았다.

연구자료는 계획과 관련된 인물의 문집과 자료를 활용하고, 연구방법은 수집한 문헌 분석을 통하여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1) 원천은 임란 전에는 鄭述, 金字顯 선생이 原泉亭에서 全八顯全八及 형제와 남명 문도로서 교유를 했고, 임란이후에는 형제가 원천정에서 명군에게 병참지원을 하였다.
2) 오환숙, 「鄉儒集과 鄉土史料」, 거창문화원, 2000, 27~28쪽.
3) 정은, 『동계선생문집』 부록 연보.

II. 중양절과 범국회

1. 민속적 유래와 동방 전래

중양절 범국회는 중국 민간 풍속에서 비롯되었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은 9가 겹치는 수이므로 重陽, 또는 重九日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중양절은 4대 명절의 하나로서 조상께 제사를 올리는 날이기도 하다.⁴⁾

이 날 높은 곳에 오르는 풍습은 後漢(25~220) 대의 도사 費長房에서 시작되었다. 육조 때 吳均(469~520)이 엮은 「續齋諧記」⁵⁾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여남의 桓景이 費長房을 따라 여러 해 공부하였다. 비장방이 말하기를, ‘9월 9일에 네 집이 재앙을 당할 것이니, 마땅히 급히 가서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붉은 주머니를 만들게 하여 그 속에 茱萸를 채워서 팔에 매고 높은 곳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면 이 재앙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환경이 그의 말대로 가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니 닭개소양이 일시에 갑자기 죽어 있었다. 비장방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짐승들이 대신 죽은 것이다.’고 했다.”

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는 풍속이 後漢의 도사 비장방에서 시작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당시 민간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면 재앙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런 도교 풍속은 점차 중국 내외에 전파되었다.

같은 후한 대에 민속뿐만 아니라 건강 장수설도 나돌았다. 應劭의 「風俗通」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4) 송재록, 「중국의 중양절」, 『한글한자문화』 207호,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16, 52쪽.

5) 吳均의 「續齋諧記」 桓景 조. “汝南桓景, 隨費長房遊學累年. 長房謂曰, 九月九日, 汝家中有災, 宜急去, 令家人各作絳囊, 盛茱萸以繫臂, 登高飲菊花酒, 此禍可除. 景如言齊家登山, 夕還, 見鷄犬牛羊, 一時暴死. 長房聞之曰, 此可代也.”

남양 역현에 감곡(甘谷)이 있는데 골짜기 물이 달고 맛이 좋았다. 말하기를, ‘그 산 위에 국화가 많이 있는데 물이 산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국화의 진액이 보태져서 그렇다.’고 했다. 골짜기에 30여 가구는 샘을 파지 않고 이 물을 먹는데 오래 사는 사람은 백이삼십 세, 중간쯤 사는 사람은 백여 세, 칠팔십 세 사는 사람은 요절한다고 한다. 국화가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더해주어서 사람을 굳세고 강건하게 하기 때문이다.⁶⁾

이 기록에서는 국화의 진액이 골짜기의 물에 스며들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했다. 이 영향을 받은 쑤대의 陶淵明(365~427)이나 宋代 蘇東坡(1036~1101)도 국화를 약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漢代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중국 민속에서는 국화를 장수하는 효능을 가진 화훼로 인식하였다. 그 밖에도 1년 열두 달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節日 및 세시풍속에는 진경벽사, 농사풍년, 무병장수를 바라는 백성의 염원⁷⁾을 반영하고 있다.

『晉書』에는 중앙절 孟嘉의 일화를 전하고 있다.

(맹가는) 뒤에 서쪽을 정벌하는 桓溫의 參軍이 되었는데 환온이 아주 중시하였다. 9월 9일에 桓溫이 龍山에서 연회를 열어 막료 부하 관리들을 다 불렀다. 이때 보좌 관리들이 모두 무신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 맹가의 모자(관모)를 날려 떨어뜨렸으나 맹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환온이 좌우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자 하였다. 맹가가 한참 만에 뒷간에 가자 환온이 모자를 돌려주게 하면서, 孫盛에게 글을 지어서 맹가를 놀리려고 그가 앉았던 곳에 두도록 하였다. 맹가가 돌아와서 보고는 곧 답을 했는데 그 문장이 아주 아름다워 사망에 앞섰던 이가 감탄을 하였다.⁸⁾

6) 應劭, 「風俗通」, “南陽酈縣有甘谷, 谷中水甘美. 云其山上大有菊華, 水從山上流下, 得其滋液. 谷中三十餘家, 不復穿井, 仰飲此水, 上壽者百二三十, 中者百餘歲, 七八十者, 名之為夭. 菊華輕身益氣, 令人堅強故也.”

7) 상기숙, 「中國 民俗 文獻을 통해 본 明代 歲時風俗 研究」, 『동방학』 34호, 한서대 동양고전 연구소, 2016, 485~486쪽.

8) 房玄齡 외, 『晉書』 9책 98권 〈孟嘉傳〉, 中華書局, 1993, 2581쪽. “後爲征西桓溫參軍, 溫甚重之. 九月九日, 溫燕龍山, 僚佐畢集. 時佐吏並著戎服, 有風至, 吹嘉帽墜落, 嘉不之覺. 溫使左右勿言, 欲觀其舉止. 嘉良久如廁, 溫令取還之, 命孫盛作文嘲嘉, 著嘉坐處. 嘉還見, 卽答之, 其文甚美, 四坐嗟歎.”

이 桓溫(312~373)과 孟嘉의 고사에서 龍山落帽라는 말이 생겼고, 이 후로 중앙절에 문인들이 국화주를 마시고 詩文을 짓는 풍습이 시작되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절은 漢代를 거쳐서 魏晉 시기에 와서 보편화 된 것⁹⁾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遺事』 景德王(742~765 재위) 24년(765) 조와 중국 『舊五代史』 기록에 신라 중앙절 기사가 나타난다.

승려가 말하기를, ‘저는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 남산 삼화령 미륵 세존께 올립니다.’라고 했다.¹⁰⁾

신라는, 그 나라 풍속에 중구일에 서로 경하하며 이달마다 일월신께 절을 한다.¹¹⁾

9월 9일에 미륵세존께 차를 올리고 일월신께 절을 하는 것은 중국의 중앙절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시기는 대체로 가을걷이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¹²⁾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¹³⁾

고려시대 민간의 중앙절 풍속을 알려주는 작품이 고려속요 〈動動〉이다.

“九月 九일에 / 아으 藥이라 먹는 / 黃花고지 안해 드니 / 새서 가만흐애라 / 아으 動動다리”

이 시가는 월령체 노래로서 ‘구월 구일에 약으로 먹는 황화꽃이 제철 안에 피니 歲序가 늦구나.’라고 노래하면서 ‘아, 동동다리’라는 악기 소리를 후렴구로 넣어서 9월 9일의 세시풍속을 노래하였다. 이 노랫말은

9) 최은정, 「高麗唐 문인의 중앙절 登高詩 비교 연구」,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6, 275쪽.

10) 一然, 『三國遺事』 2권 紀異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조. “僧曰, 僧重三重九之日, 烹茶, 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11) 薛居正 외, 『舊五代史』 138권, 列傳2, 新羅 조. “新羅, 其國俗, 重九日, 相慶賀, 每以是月, 拜日月之神.”

12)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출판부, 1985, 309쪽.

13) 최광식, 「문헌상으로 본 신라의 세시풍속」, 『신라사학보』 47집, 신라사학회, 2019, 174~175쪽.

고려인들이 세시풍속으로 국화꽃을 약으로 먹으면서 노래하고 놀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고려의 문인들은 환온의 연회처럼 술자리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시문을 지어서 보이면 그에 화답하는 글을 지어서 주고받는 모습을 연출¹⁴⁾ 하곤 했다.

고려 왕실에서는 주로 외국 사신들이나 주요 대신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거나 선대왕께 제사를 모시고, 참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⁵⁾ 이는 중국 문화를 수용하여 정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서 왕실에서 주로 上王이나 사신들에게 주연을 베풀고, 대신들에게 연회를 열어주었는데 세종대부터 현종대까지 지속되었다. 숙종 대부터는 중양절을 맞아 유생에게 과거를 보도록 하였고, 이 행사가 철종 대까지 이어졌다. 다만 나라에 재변이나 흉년이 들면 행사를 하지 않았다.¹⁶⁾

사대부 문인들은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고 시를 지었으나 조선후기 서민들의 행사는 약간 달랐다.

사대부로서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올라가 賦나 詩를 지었다.¹⁷⁾

빛이 노란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만드는데, 3월 삼짇날 진달래떡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중략) 서울 풍속에 남산과 북악산에서 이날 마시고 먹으며 즐긴다. 이는 등고의 옛 풍습을 답습한 것이다.¹⁸⁾

양반 사대부는 국화주를 마시고 시문을 짓는 풍류의 성격을 띠었으나 서민들은 국화떡을 해 먹고 술을 마시며 놀았다는 酒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4) 최은정, 「高麗時期 重陽節 관련 漢詩의 중국 고전시 수용 양상 연구」, 『中國學報』 82권, 韓國中國學會, 2017, 268~269쪽.

15) 『고려사』 세가 4, 8, 9, 14, 19, 20, 24권에 나타나고 있다.

16) 『조선왕조실록』 세종~철종 대.

17) 김매순, 「洙陽歲時記」, 9월 조, 1819. “士大夫好古者, 多以重陽日, 登高賦試.”

18) 홍석모, 「東國歲時記」, 9월 9일 조, 1849. “採黃菊花, 爲糯米餠, 與三日鵲花餠同. (중략) 都俗, 登南北山飲食, 以爲樂, 盖襲登高之古俗也.”

2. 도연명의 술과 국화

민간의 풍속이나 장수 이미지와는 달리 중국 문인들에게는 술과 국화가 다른 의미를 표상하는 시어로 사용되고 있다.

초나라 屈原(B.C. 343~278)은 〈漁父辭〉에서 어부와 문답을 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작품이 있다.

굴원이 추방되어 강가에서 노닐고 가다가 못 속에서 읊으니 안색이 초췌하고 행색이 비쩍 말랐다. 어부가 그것을 보고 묻기를, ‘그대는 三閭大夫가 아닌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에 왔는가?’하니, 굴원이 말했다. ‘세상 사람이 다 흐리나 나만은 맑고 모든 사람들이 다 취했으나 나만 깨어있어서 이 때문에 추방되었다.’ 고 했다.¹⁹⁾

陶淵明的 〈飲酒 13〉에서는 굴원이 어부에게 ‘사람들이 다 취했으나 나만 깨어있어서 추방되었다.’는 구절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타난다.

有客常同止	항상 함께 사는 나그네가 있는데
趣捨邈異境	취하고 버림이 아득히 달랐다네
一士長獨醒	한 선비는 늘 홀로 취해있고
一夫終年醒	한 사람은 평생 깨어 있었네
醒醉還相笑	갠 이나 취한 이는 도리어 서로 비웃으며
發言各不領	하는 말을 서로 깨닫지 못했지
規規一何愚	틀에 얽매이니 어찌 그리 어리석은지
兀傲差若穎	거만한 주정뱅이가 조금 나아보이는 듯
寄言酣中客	취한 나그네에게 한 마디 하노니
日沒燭當炳	해 진 뒤에는 촛불을 밝히고 마시게나 ²⁰⁾

19) 소통 역음, 《文選》 4책 33권 騷下 〈漁父〉, 上海古籍出版社, 1999, 1532쪽. “屈原既放, 遊於江潭, 行吟澤畔, 顏色憔悴, 形容枯槁. 漁父見而問之曰, 子非三閭大夫歟? 何故至於斯? 屈原曰, 世人皆濁, 我獨清, 衆人皆醉, 我獨醒, 是以見放.”

20) 陶淵明, 『陶靖節集』 1권 〈飲酒〉 13.

여기서 늘 취해있고 또 술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앞의 〈어부사〉에서 ‘홀로 깨어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세상을 구할 재능을 지니고서도 그 뜻을 펴지 못하거나 펴지 않는 사람이 가슴에 쌓인 울분을 토하는 방식을 술로 나타냈다. 오늘날도 술은 깨어있던 사람이 현실적 욕구불만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蕭統이 ‘도연명은 술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술에 기탁하여 자신의 자취로 삼았다.’²¹⁾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도연명 이후 중국 문학에 술이 등장할 때 그 함의가 다양하고 깊어진 것은 도연명의 영향이 크다. 唐代에 활약한 李白 역시 술을 통하여 낭만을 추구했다기보다는 현실과 사회에 대한 항의를 표현할 때가 많았다.²²⁾

도연명의 〈飲酒 5〉 작품은 국화를 노래한 시이다.

結廬在人境	오두막 엮어 인가 근처에 있으니
而無車馬喧	수레와 말울음이 시끄럽지 않네
問君何能爾	그대에 묻노니 어찌 그럴 수 있나?
心遠地自偏	마음이 머니 땅이 절로 외지다네
採菊東籬下	동쪽 울밑에서 국화를 따서
悠然見南山	유연히 남산을 보나니
山氣日夕佳	산 기운은 석양에 아름답고
飛鳥相與還	나르는 새는 서로 함께 돌아오누나
此中有眞意	이 가운데 참 뜻이 있으니
欲辯已忘言	말 하려다 이미 말을 잊었노라 ²³⁾

이 시는 도연명이 읊은 산천과 전원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래서 청신하고 정취가 유장(悠長)하다. 특히 ‘동쪽 울밑에서 국화를 따서 유연히 남산을 보나니’(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명구에서 훌륭한

21) 蕭統, 『陶靖節集』 2권 부록 〈陶靖節集序〉. “吾觀其意, 不在酒, 亦寄酒爲迹者也.”

22) 송용준, 「도연명 시에 나타난 ‘술’의 의미」, 『인문논총』 65집,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1, 324~325쪽.

23) 도연명, 『陶靖節集』 1권 〈飲酒〉 5.

국화를 보면서 속세를 낮춰보는 고사(高士)의 의미가 스며있고, 隱者和 풀지 못할 인연을 맺고 있어서 봉건시대 문사의 고고하고 속세를 벗어난 정신적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²⁴⁾ 그의 시 연원은 應璩에서 나왔고, 左思의 풍격을 따르고 있다. 문체는 간략하며 풍격은 청아하고 세련되어 거의 군더더기 말이 없다. 시의 내용은 순수하고 질박하며 그의 문장에 서는 다른 인품과 덕행을 상기시키며 고금을 통털어 은일시인의 시조라 할 수 있다.²⁵⁾

이렇게 일찍이 鍾嶸(468~518)은 『詩品』에서 도연명을 은일시인의 시조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고려, 조선의 문인들에게도 이런 의미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시구 중에서 ‘국화를 탐다(採菊)’는 시어에서 은일적인 태도를 읽게 하고 청신하면서도 정적인 전원생활과 청정하고 담백한 심경을 담아냈다.²⁶⁾ 결국 도연명의 작품에 나타난 국화는 隱逸과 節操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형상화 되었다.

이러한 도연명의 이미지는 고려와 조선의 사대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고려 말의 李穡(1328~1396)도 도연명의 은일 이념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작품 여러 곳에서 은일을 동경하는 모습을 표출하였다.

種菊添我逸	국화 심어 내 뛰어난 은일을 더함은
深期在歲暮	추운 겨울을 깊이 기약함이라오
霜清秀色明	서리는 맑고 핀 꽃 색깔도 밝아서
白酒相媚嫵	막걸리와 서로 잘도 어울리누나
落帽自風流	모자 떨군 건 저절로 풍류였으나
誰會悠然趣	유연한 정취는 그 누가 알랴?
淵明千載人	도연명은 천 년의 인물이거니

24) 韓廣澤·李岩齡, 『中國古代詩歌與節日習俗』, 天津人民出版社, 1992, 235쪽. “自陶詩‘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的名句一出, 菊花就和孤標傲世的高士, 隱者結下不解之緣, 幾乎成了封建文士孤高絕俗精神的象征.”

25) 鍾嶸 著 / 徐達 역주, 『詩品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1, 97~99쪽. “其源出于應璩, 又協左思風力. 文體省淨, 殆無長語. 篤意眞古, 詞興婉愜. 每觀其文, 想其人德. 世嘆其質直. (중략) 古今隱逸詩人之宗也.”

26) 金眞, 「韓國和陶〈飲酒〉詩의 ‘菊’意象」, 『淵民學志』 23집, 연민학회, 2015, 179쪽.

欲訪恐迷路 찾아가려 해도 길 헤맬까 염려로세
(이색, 『목은시고(牧隱詩藁)』5권 〈국화를 심고(種菊)〉 3)

起聯의 국화는 傲霜孤節의 은일로서 닥쳐올 겨울의 추위에도 변함없을 충절을 나타냈고, 頷聯의 국화는 맑은 서릿발에도 빛을 잃지 않는 절조가 술과 잘 어울린다고 현실적 괴로움을 표현하였다. 頸聯에서 도연명의 외조부인 孟嘉가 바람에 모자를 떨어뜨린 고사가 풍류였음은 모두 알지만 도연명이 동쪽 울 밑에서 국화를 탄 정취는 시인 자신이 잘 안다고 하였다. 尾聯에서 이색은 도연명을 천 년의 인물이어서 찾아가려 해도 길을 잃을까 걱정이라면서 그를 동경하는 마음을 드러내 도연명의 은일을 사랑하고 그의 정취를 흠모하였다.

국화를 은일이나 절조를 상징하는 작품은 이 밖에도 李穀(1298~1351)의 〈9월 10일 국화(十日菊)〉, 鄭誦(1309~1345)의 〈국화를 읊다(詠菊)〉 등²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 국화는 은일보다 절조를 강조하는 상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桐溪가 17세기에 지은 국화 시가 있다.

[1]

靜中相對結幽盟	조용한 가운데 마주하고 그윽한 맹세를 하였네
風送寒香滿袖清	차가운 향기 불어 주니 맑은 향이 소매에 가득
堪笑靈均餐太早	우습기도 하지 굴원은 너무 일찍 먹어서
却忘看取傲霜英	서리에도 굽히지 않는 꽃을 볼 줄 모르다니

[2]

羞競桃紅李白時	복사꽃 오얏꽃과 시절 다투기 싫어서
苦持霜打雪侵姿	괴롭게도 눈서리 맞는 자태를 가졌어라
朝嘯又對孤囚客	아침저녁 또다시 외로운 유배객을 대하다니
植物之中數亦奇	식물 중에 너의 운수도 기막하다 하겠나

(정운, 『동계집(桐溪集)』1권 칠언절구 〈화분의 국화를 읊다(茗分國) 2수〉 전문)

27) 이동재, 「한국 한시에 나타난 국화의 의미」, 『東方漢文學』 56집, 동방한문학회, 2013, 251~252쪽.

[1]의 結句에서 동계는 서리에 굽히지 않는 국화의 이미지를 나타냈고, [2]의 起句와 承句에서도 눈서리 맞는 자태, 즉 절개를 나타내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조선시대 문인들은 도연명의 시를 인용하되, 자신의 철학에 따라 用事한 것을 볼 수 있다. 국화를 직접 심고 가꾸면서 경험했던 국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녹여서 시를 창작했던 것이다.²⁸⁾

병자호란 이후의 삶을 살았던 朴世堂(1629~1703)은 시로 당시의 고난을 국화로 극복하고자 한 자세를 드러냈다.

休嗟青蕊枉佳辰 푸른 꽃이 가절에 피지 않는다고 탄식하지 마라
爲晚高應晚更眞 국화의 고절함은 늦게 필수록 참되나니
不待衆芳枯落盡 못 꽃잎 다 지기 전에 알 수 있으리
風霜誰與助精神 바람서리에 누구와 나의 정신을 도울 것인가
(박세당, 『西溪集』4권 시 [石泉錄 下] 〈중양일에 화분의 국화가 피지 않아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지어 두보(杜甫)의 뜻을 뒤집다(重陽日, 盆菊未開, 戲
爲一絕, 反杜意)〉 전문)

제목에서 박세당은 두보의 뜻을 뒤집어서 시를 쓴다고 했다. 두보의 뜻이란 앞에서 뜰 앞에 감국을 늦게 심어 중양절에 꽃을 따지 못하겠다고 한 시구를 가리킨다. 起句에서는 꽃이 재절에 피지 않는다고 탄식하지 말라고 두보의 시에 답했다. 承句에서는 늦게 필수록 국화의 고절이 참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박세당은 호란과 당쟁의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 민생이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도 재야에서 학문에 힘썼던 인물이다.

국화의 문화적 생태는 고려시대에 이미 청자에서 菊花紋을 사용했으나 조선시대 선조 때 와서야 겨울 매화, 봄 난초, 여름 대나무, 가을 국화 등 四君子를 수목화 소재로 사용하였다.²⁹⁾ 이때 사군자가 표방하는 상징적 의미는 절조였다.

28) 이동재, 앞의 논문, 257쪽.

29) 이선옥, 「朝鮮時代 菊花圖의 展開過程과 變化要因」, 『역사학연구』 32집, 호남사학회, 2008, 157쪽.

Ⅲ. 동계 정온과 용산 범국회

1. 범국회 결성의 동기

1) 정치·사상적 배경

광해조 1613년에 영창대군 옥사가 일어나고, 1614년 동계가 죽은 영창대군에게 위호를 내릴 것과 선왕비를 폐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소를 해서 광해군에게 정면으로 반대한 일로써 제주도 대정에 위리안치 되었다. 당시 문성후의 부친 茅溪 文緯 역시 폐모사건으로 사직하고 낙향하였고, 오계 조정립과 일족 역시 광해의 실정에 동계와 뜻을 같이했으며, 전국의 많은 유림들도 동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남평 문씨 문중과 창녕 조씨 문중, 동계 문중은 동지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계의 제자 팔송 정필달이 경상우도의 유력한 선비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여 마침내 1636 병자년에 용산범국회를 출범시키는 첫 번째 계기를 만들었다.

1623년 인조가 반정으로 집권하고 4년만인 1627년 1월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동계는 이 소식을 듣고 2월에 강화도 행재소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筵子를 올려 군대를 정비하여 국경을 지키면서 적을 패퇴시킬 방략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인조가 우의정 吳允謙과 崔鳴吉의 화의 주청을 받아들여 명나라 연호를 쓰지 않기로 하고 끝내 화친을 맺었다.

당시 조선의 민심은 명나라가 내세운 再造之恩을 수용하는 편이어서 명나라 神宗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었고,³⁰⁾ 민심은 崇明排金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동계는 斥和 主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병을 칭탁하고 고

30) 이런 여론은 李元禎의 〈歸巖李元禎燕行錄〉, 韓章錫의 『眉山集』 〈跋文〉, 柳重教의 『省齋集』 〈講說雜稿〉 등 임란 이후 발간된 문집에서 산견 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숙종 38년 임진(1712) 1월 17일(신축) 기사, 영조 28년 임신(1752) 2월 27일(기미) 기사에 감읍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향으로 내려와 수차례 임금이 불러도 나가지 않았고, 상경했다가도 금방 사직소를 올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³¹⁾ 병자호란의 기미가 있기 직 전까지 역동이나 용산에 머물면서 경상우도의 많은 인사들과 교유를 하였다. 이 교유가 용산범국회 계획 성립의 두 번째 계기가 되었다.

2) 시묘와 동계의 강화

동계가 1630년 62세 때 모친 정부인 진양 강씨가 타계하자 가북 용산에 장사지내고, 묘 아래 여막을 짓고 시묘를 하였다. 1631년 10월 63세에는 여막 자리에 재실을 짓기 시작하여 1632년 5월에 완공되자 龍泉精舍라 이름 지었다. 이는 朱子의 寒泉精舍에서 따 온 이름이다.³²⁾ 이 무렵 지역의 여러 제자들이 용산으로 찾아와 수학하였다. 10월에는 부친 嶧陽府君께 효행 정려가 내려움을 고유하고 용천정사에서 머물렀다.

동계 사후에는 유서에 따라 主谷(현 거창군 주상면)에서 용산 대부인 묘 아래로 천장하고 나서 올리는 향사를 菊薦禮라고 하고, 그날을 菊薦日이라 하였다.³³⁾ 이는 治隱 吉再(1353 ~1419)가 伯夷·叔齊를 黃菊으로 제사했다는 고사에서 따 온 명칭인데 동계가 여러 번 천거된 것을 비유하여 ‘거듭된 아홉 번의 천거는 국화주로 한다.’는 뜻에서 붙인 향사 명칭이다. 여기서 국화는 절의의 상징어로 사용되었다.

동계가 용산에 머물 무렵 지역의 여러 제자에게 강학했는데, 범국회원의 상당수가 동계 제자였다. 제자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뜻을 같이하려는 절조를 숭상한 것이 범국회를 맺게 된 세 번째 동기가 되었다.

31) <동계 연보>에서는 이 무렵 동계가 ‘상경-사은-사직-낙향’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으나 정계에서 시선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국정의 민감한 문제와 재난이 있으면 차자(劄子)를 올려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여 임금께 정책을 간언하고 있었다.

32) 이영덕 간/ 정종필 씀, 『古文書集成』 23권 <龍泉精舍事蹟統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838쪽. *한천은 자식이 부모를 효성으로 공경한다는 의미로써 ‘시묘한 곳’이란 의미가 있다.

33) 이영덕, 앞의 책, <齋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868~869쪽.

3) 동계 학맥의 연결

동계 선조의 학맥이 함양의 一蠹 가문과 닿게 된 것은 거창 龍山에서 외가 마을인 함양 介坪으로 이주한 동계의 6대조 鄭俊이 하동 정씨 鄭復周의 딸을 재취로 맞이하여 혼맥을 잇게 되면서부터였다. 정전의 손자 鄭從雅가 역동으로 이주하고, 아들 鄭玉堅 대에 와서 일두와 본격적인 학맥을 이루게 되었다. 정옥견은 동갑인 일두와 교유하면서 姜漢과 도의 지교를 맺었고, 뒷날 동계의 부친이 강한의 아들 姜謹友의 사위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한의 손자로서 남계서원 창건에 앞장 선 介庵 姜翼은 동계 문중과 혈연의 맥을 넘어 학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남계서원에 동계와 개암이 같이 陞享 되도록 요청하는 梁天翼의 상소를 숙종이 재가함으로써 ‘정여창(一蠹)-강익(介庵)-정온’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인정받게 되었다.³⁴⁾

동계는 어려서 石谷 成彭年(1540~1594)에게 擊蒙의 공부를 익혔다. 15세 때는 葛川 문인이었던 부친을 따라 林薰(1500~1584)을 찾아뵈었다. 이렇게 해서 동계의 가학은 ‘임훈-정유명-정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학통이 수립되었다.³⁵⁾ 31세에는 來庵 鄭仁弘(1525~1623)을 찾아 수학하였다.³⁶⁾ 이로써 남명학과로는 ‘남명-내암-성평년-정온-박만-정필달-송정렴-이수억’으로 전승되는 사우관계를 형성하였다.³⁷⁾

동계는 퇴계 학통도 이어받았다. 퇴계학과로는 ‘퇴계-조목-정온-조경허-이익’³⁸⁾으로 이어지는 기호 남인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남명학과 퇴계학의 절충으로서 20세 전후에 江岸학과 寒岡 鄭述(1543~1620)의 문하에 출입하였고, 32세에 이미 梧里 李元翼

34) 김학수, 「桐溪 鄭蘊의 學脈」, 『남명학보』 4호, 남명학회, 2005, 128~131쪽.

35) ‘정일근, 「朝鮮後期 居昌地域(安陰縣)의 學統과 思想」, 『東方漢文學』 22집, 동방한문학회.’ 자료를 ‘김학수, 위의 논문, 126쪽’에서 재인용.

36) 정온, 국역『동계집』 부록 〈동계집 연보〉 광해군 27년 기해년 선생 31세 조.

37) 오환숙, 앞의 책, 2000, 43쪽. 이상필, 『남명학과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2003, 159~160쪽.

38) 송희준, 「동계 정온의 학통과 학문사상」, 『영남학』 26집,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소, 2014, 71~75쪽.

(1547~1634)에게 배움을 청하고, 이 무렵 남명과 퇴계 양문을 왕래하면서 학업에 정진하였다.³⁹⁾

동계의 삶에서 그가 敬을 통하여 내면을 곧게 하고, 義를 현실에서 실천하여 敬義 사상을 실현하려고 한 면면⁴⁰⁾에서 남명학파의 학통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계가 용산범국회 계원에게 학문을 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조경과 허목과 같은 뛰어난 인물도 있으나 합천·삼가·거창·안의 등 인근 고을의 선비들이 많았다. 조정립은 처음에 당숙 우인(友仁)에게 배웠고, 혈연적으로는 정인홍의 문인이었던 黃江 李希顔(1504~1559)의 외증손으로서 남명학파의 학통을 이었다. 임진부는 瞻慕堂 林芸(1517~1572)의 손자로서 가학을 잇고 蘆坡 李屹(1557~1627)에게 수학하였다. 신순몽은 증조부 申季誠(1499~1562)이 남명학파로 구분되는 인물이었고, 이응백은 孤隱 李智活의 5세손으로 정구와 문위를 사사하여 정필달과는 동문이었다. 문성후의 부친 문위는 정온의 부친 정유명과 송암 김면 장군의 막하에서 임란 때 의병으로 활동하였고, 寒岡에게 수학하였으니 동계와는 동문이었다. 변창후의 부친 변혼 역시 김면 막하에서 활동하였으며, 문위에게 수학하고 조경과 허목을 사사하였다. 김상견은 동계가 용산에서 시묘할 때 아우 김익견과 함께 수학하였으며, 이난미는 어려서는 종형 東湖 공에게 배우고 자라서는 한강에게 수학하였다. 최후원은 동계가 시묘할 때 용산을 찾아가 수학하였고, 이봉일은 삼가에 거주하면서 이흠·임진부·조종도와 교유하던 인물이었다. 광흥규는 현풍에 거주하면서 가학을 익혔고, 신여량은 합천에 거주하면서 가학을 이었다. 이수장은 이흠과 동계에게 수학하였고, 임진부·조임도 등과 교유하였으며, 정필달은 용산에 거주하면서 조경에게 수학하고, 동계가 시묘할 때 제자가 되었다.

범국회 계원들은 폐모 사건에서 뜻을 같이했던 동지들이거나 남명학파의 학맥을 이은 사람들이었고, 이 계원들은 주로 문위·정온·조경·허목 등과 사승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범국회의 중심인물 정온을 고리로 학

39) 김학수, 위의 논문, 144쪽.

40) 송희준, 위의 논문, 93쪽.

맥을 형성하여 교유하고 있었다.

2. 용산범국회 결성

용산범국회 모임은 인조 9년(1636), 동계가 68세이던 9월 9일에 처음 있었다. 장소는 거창현 가조 용산의 龍山亭과 그 맞은 편의 落帽臺였다. 〈동계 연보〉에 용산은 동계의 6대조 鄭俊이 개평으로 이주하기 전 晩築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용천정사 뒷산은 선영이 있고, 그 아래는 동계의 시묘 터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용산은 안의·거창·함양 3개 현 유림들이 찾아와 강론을 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거주처가 모리재였다면, 1630년부터 병자호란 전까지의 주 활동지는 용산이었다.

용산범국회 자리에 모인 사람은 정필달을 포함하여 21명이었다.

화림(안음현)의 정 선생, 봉사 정백, 강양(합천군)의 사간 조정립, 창원 수령 조정생, 도사 조시일, 정자 조시량, 신순몽, 신여량, 봉성(삼가현) 사부 임진부, 이봉일, 이수장, 포성(현풍현) 생원 곽홍규, 성산 이난미, 진사 이호, 본군(거창현)의 이응백, 문성후, 김상건, 변창후, 김익건 등 여러 장유들이 다 모였다. 벗 최후원이 이 연회를 주관하였으니 실로 근래에 성대한 거사였다.⁴¹⁾

참가자를 보면 봉사 정백은 동계의 아우이며, 정자 조시량은 사간 조정립의 장남이고, 도사 조시일은 창원 수령 조정생의 장남이다. 신여량은 신순몽의 3남이며, 이수장은 이봉일의 장남이고, 김상건과 김익건은 형제 간이다.

21명의 모임⁴²⁾은 다섯 고을의 兄弟·父子·벗·인척·사제 간으로 출사 여

41) 정필달, 『八松先生文集』 5권 序 〈龍山泛菊會序〉, 1902. “花林鄭先生, 鄭奉事緬, 江陽曹司諫, 曹昌原挺生, 曹都事時逸, 曹正字時亮, 申順蒙, 申汝亮, 鳳城林師傅眞愼, 李奉一, 李壽樟, 苞城郭生員弘圭, 星山李蘭美, 李進士灝, 本郡李應白, 文誠後, 金尙堅, 卞昌後, 金益堅諸長幼咸集. 崔友後遠主辦是宴. 實近古盛舉也.”

42) 참고로 『月潭先生文集』 〈연보〉에는 이 모임의 참가자가 20여 명이라고 했는데

부와 관계없이 평소 교유하던 인물로 구성되어 있었다.⁴³⁾

당일 행사는 용산정에서 시작되었다. ‘승정 병자년(1636) 9월 9일에 용산정에서 국화를 띄웠으니 예스럽다.’⁴⁴⁾ 하였다. 바람이 국화의 꽃잎을 떨어뜨리고, 향기가 동쪽 울에 질은 때에 이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안음 삼동을 거쳐서 옥처럼 깨끗한 이야기를 하고 신선이 술을 마시듯이 하며 걸어서 이곳으로 모여 든 이도 있었다.⁴⁵⁾ 그리고는 다시 낙모대로 이동했다. 낙모대 행사를 설명한 자료가 정필달의 〈용산범국회서〉였다.

누가 이와 같이 孟嘉와 벗을 이끌고 용산의 술을 가지고 모이겠는가? 중앙절을 맞이하여 낙모대에 올라 어르신과 선생님 사이에 거연히 있으니 내게 園林과 泉石의 즐거움을 주었다. (중략) 이에 웃으며 좋은 음식을 재촉하니 일어나 술잔을 씻고는 뒤섞여 주고받으며 술상 위를 오가더니 갓이 비스듬해지면서 많은 손님들이 기뻐하였다.⁴⁶⁾

이 서문에 나타난 광경을 보면 풍류문화를 나타내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당일의 모임에서는 풍류문화가 갖추어야 할 유희적(놀이) 요소, 예술적 요소, 종교적 요소, 자연합일적 요소 중에 어느 요소가 나타나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鄭必達(1611 ~1693)이 어르신에 해당하는 여덟 명을 8선이라 한 걸 보면 스스로는 풍류로 인식했던 듯하다.

정확히는 21명이었다. *변창후(1961), 『月潭先生文集』 〈연보〉 46세 조, 5쪽.

43) 「龍山泛菊會誌」 4쪽에서는 ‘정온, 조정립, 임진부, 정백, 신순몽, 이응백, 문성후, 변창후, 김상건, 조시량, 이호, 김익견, 이난미, 최후원, 이봉일, 곽홍규, 신여량, 이수장, 정필달’ 등 19명만 기재되어 있어, 조정생과 조시일이 빠져있다. 두 명은 1636년 모임에는 참석했으나 뒷날 어떤 사유로 契會에서 빠지고 19명이 되었다.

44) 정필달, 앞의 글. “歲崇禎丙子年九月九日, 泛菊于龍山亭, 古也.”

45) 정필달, 앞의 글. “風破老菊, 香已藹於東籬, 如此良辰何? 適與佳期會, 乃訪風景於蘭路. (중략) 德星聚野, 談蜚玉雪, 漫浪三洞之遊, 羽泛瓊觴, 從容八仙之飲.”

46) 정필달, 앞의 글. “孰若茲會携孟嘉朋佩龍山酒? 當重陽節, 登落帽臺. 居然杖屨軒屏之間. 餉我園林泉石之樂. (중략) 於是, 笑促華茵. 起洗金罍. 酬酢凌亂. 盃盤縱橫. 紗弁側而衆賓歡.”

이날 ‘동계 정선생이 제현들과 낙모대에서 국화주를 마시고 이어서 講信會를 하고 이름을 쓰고는 계 하나를 만들기로 약속’하였으니⁴⁷⁾ 이는 대개 국화가 늦게까지 절의를 지킨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국화를 따서 큰 술잔에 띄우고 흥이 다하도록 놀면서 성명을 잇따라 쓰고 泛菊契⁴⁸⁾라고 하고, 정필달이 동계로부터 이날을 기록하라는 말을 듣고 범국회 서문을 남겼다. 당시 25세의 정필달은 30세였던 벗 崔後遠(1606~?)과 같이 그날 손님 접대를 담당하고 나중에 서문과 시를 썼던 것이다.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동계는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1637년 1월에 主和派가 결국 화의를 결정하고 항복하기로 하자 자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였다. 2월에 남으로 내려와 이듬해 봄에 某里로 들어가 은거하고는 다시 세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로써 ‘계를 만들고 규약을 세워 해마다 모이기를 바꾸지 말자’⁴⁹⁾고 한 용산범국회는 중단되었다.

IV. 동계 이후의 범국회 활동과 그 의의

1. 범국회의 재개와 확산

동계가 사후 중단되었던 계회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은 고종 무술년(1898)이었다. 이 해에 19명 제현⁵⁰⁾의 자손들이 契帖을 간행하여 집에

47) 김우현, 〈龍山落帽臺 泛菊會諸賢 事蹟碑〉, 1911. “丙子年九月九日, 桐溪鄭先生, 與一時諸賢, 범국우龍山之落帽臺, 仍設講信會, 書名洞案, 約爲一契.”

48) 최훈교, 『東山文集』 4권 〈續修泛菊契案序〉, 1959. “摘黃花, 泛大白, 盡興而遊, 聯署姓名曰泛菊契.”

49) 이증철, 「龍山泛菊會錄」 〈龍山泛菊會錄序〉, 1929.

50) 처음에는 21명이 모였으나 나중에 조정립의 아우 조정생과 조정생의 아들 조시일이 빠지고, 19명의 원안(原案)이 1931년 「범국회록」에 등록되었다. 그러나 속계할 때 이호와 곽홍규의 후손이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17명의 후손들이 활동을 재개한 셈이었다.

소장하고 계의 사적을 새겨서 비석을 옛 유허지에 세우고자⁵¹⁾ 하였다. 이때의 전말을 1929년에 지은 〈龍山泛菊會錄序〉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고종 무술년(1898) 후손 모든 집이 續契를 거듭 의논하고, 속계도 만족스럽지 못하여 비석을 세워서 그 사적을 세우기로 했으나 그 비석 또한 부족해서 인재를 해서 널리 퍼낼 계획을 하고 순수한 모임의 사실 전말 및 제공의 행장을 모으고, 그것을 합쳐서 한 권을 만들었다. 그 사이에 정태호·정재성·김준 등 모든 선비가 내게 급히 편지를 보내 책머리의 한 말씀을 부탁하였다.⁵²⁾

이때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은 제현의 후손 정한기·김채진·정인환·최규환 등이었고,⁵³⁾ 실제 속계 첫 모임은 고종 경자년(1900)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12년 뒤 신해년(1911) 여름에 낙모대 서쪽에 비석을 세워 그 사적을 기록하였다.⁵⁴⁾

비석의 체계는 제일 상단에 전서로 ‘龍山落帽臺泛菊會諸賢事蹟碑’를 새기고, 중간에는 세로로 성명, 자, 호, 관직, 관향, 거주지 순으로, 비석 4면에 돌아가면서 정운, 조정립, 임진부, 정백, 신순몽, 이응백, 문성후, 변창후, 김상건, 조시량, 이호, 김익건, 이난미, 최후원, 이봉일, 곽홍규, 신여량, 이수장, 정필달 순으로 契案에 있는 대로 19명의 諸賢姓諱를 새겼다. 아래 1/3 위치에서는 그 동안의 경과를 적고 후손에게 ‘영원토록 느끼어 사모하는 뜻을 붙인다.’⁵⁵⁾고 하였다.

1931년에는 「泛菊會錄」을 함천군 묘산면 팔심리에 거주하던 申彦警

51) 최훈고, 앞의 글. “高宗戊戌, 諸賢子姓, 刊契帖而藏于家, 刻契蹟而立石故墟.”

52) 이종철, 앞의 책, 〈龍山泛菊會錄序〉. “高宗戊戌雲仍諸家重議續契, 續契不足而堅碑紀其蹟, 堅碑又不足而圖鉅梓以廣布, 乃袁粹會事顛末及諸公行狀, 合一爲一卷. 既鄭泰鎬鄭載星·金準僉甫馳書不佞, 要一言弁首.”

53) 전봉수(1966), 『吾山文集』 6권 序 〈龍山泛菊契復案序〉. “吾黨莊士鄭漢紀·金采鑾·鄭寅煥·崔奎煥諸君, 亦其趾美而有聞者也.”

54) 정재성, 「龍山泛菊會錄」〈跋〉, 1930. “迺去庚子秋, 自諸賢後仍, 集契以續之, 後十二年而樹碑, 以紀其蹟.”

55) 김우현, 〈龍山落帽臺 泛菊會諸賢 事蹟碑〉, 1911. “寓永來感慕之意云爾.”

이 한 책으로 발간했는데, 발행자는 신순몽의 후손으로 파악된다. 이 책의 체제는 ‘19명의 범국회원 명단’, 정필달의 ‘범국회 서문’, ‘범국회 제현 유사’를 수록하였고,⁵⁶⁾ 정재성의 ‘발문’으로 구성되어있다.

1941년 자료의 끝에는 용천정사에서 계원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용산에서 범국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회원 명부를 용천정사에 1부, 가조면 부산 永慕齋에 한 부를 보관한다고 하여 有司가 일부리 부산의 상산 김씨 문중에서 담당했다. 다만 1941년 같은 해에 작성되었으나 〈용산범국회지〉의 계원 명단과 동계 문중에서 전하던 〈龍山泛菊稷複案〉의 후손 명록에 나타난 계원 수와 거주지는 차이가 있었다.⁵⁷⁾

‘회지’ 자료에는 1931년에 간행한 책의 내용에는 후손록이 없고, 1941년과 1996년 후손록이 각각 나타나 있는데, 초계 정씨 동계 문중에서 전해오던 ‘복안’의 문서에는 1941년 후손록의 회원 수와 같은 해 ‘회지’의 회원 수와 명단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다.⁵⁸⁾ 이처럼 같은 해의 기록인데도 두 자료가 후손 수와 거주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1996년에 ‘회지’를 재정리 간행하면서 생긴 오차로 보이며, 1996년 자료에서는

56) 제현 유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은 신도비명, 조정립 행장, 임진부 행장과 묘갈, *정백 사실, 신순몽 묘갈, 이응백 사실, 문성후 사실, 변창후 묘갈, 김상건 행장, 조시량 사실, *이호 사실, 김익건 사실, 이란미 행장, 최후원 묘갈, 이봉일 사실, 곽홍규 사실, 신여량 묘갈, 이수장 사실, 정필달 묘갈을 수록하였다. 여기서 *표한 자료는 내용이 간략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57) 표에 나타난 ‘복안’은 1941년에 작성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간, 「고문서집성」 23 〈龍山泛菊稷複案〉, 873~892쪽.’에 수록된 기록이고, ‘회지’는 1941년과 1996년에 작성된 ‘용산범국회(1996), 「龍山泛菊會誌」, 후손록재편찬위원회, 62~82쪽, 83~117쪽.’의 명단과 거주지를 나타낸 내용이다. 이 두 자료 명칭을 줄여서 각각 ‘복안’과 ‘회지’로 표기하였다.

58) 두 자료를 비교하면 정은정백 항에서 46→49명으로, 조정립·조시량 항에서 97→85명으로, 문성후 항에서 3→4명으로, 변창후 항에서 58→61명으로 변동되었다. 거주지는 정은정백 항에서 항곡이 빠지고 김봉·압곡·행정으로 구체화 되었고, 최후원 항에서 거창 갈지와 삼가 대평이 ‘회지’에는 빠져있으며, 이봉일·이수장 항에서 산청이 산청 단성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보아 ‘회지’의 기록에서 재정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41년 자료보다 240명 내외의 회원이 증가했고, 거주지는 거창·안의·달성·함천·산청 등 영남권에서 전국권과 외국으로 확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용산범국회를 속계하게 된 동기는 당시 국내외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19세기 말은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려는 외세와 국권을 수호하려는 민초들이 대립하던 시기였다.⁵⁹⁾ 1898년 급변하는 정국 아래 용산범국회 속계를 거듭 논의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범국회를 부활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荀齋 鄭載星(1863~1941)은 당시 일제에 대하여 국민대연설회와 일본 통감부 및 국채 보상운동 본부에 서신을 보내 一進會를 규탄하고 국채보상운동, 대구 금연운동, 시민 모금운동을 통하여 국난 극복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사실에서 확인된다.⁶⁰⁾

특히 1931년에 「범국회록」을 발간하고, 1941년에는 〈용산범국계북안〉을 작성하여 모임의 결속을 강화하게 된 것은 범국회 후손들이 일제 치하를 보내면서 옛 선조의 아름다운 모임을 사모함과 아울러 그 모임에서 추구했던 절의를 그대로 지켜 결속해야 한다는 의지가 續契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6년에 와서는 범국회 회원이 643명으로 늘어나고,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또 외국까지 확산되면서 계회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다.

이후 매년 시기와 장소를 정해 매년 후손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⁶¹⁾ 비록 옛날처럼 중앙절, 낙모대는 아니어도 선조를 추모하는 마음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59) 1876년 강화도 조약, 1881년 영남만인소 사건, 1882년 6월 임오군란, 동년 7월에는 제물포조약, 1894년 동학 봉기와 청일전쟁, 1895년 을미사변과 의병봉기, 1896년 아관파천, 1898년 2월 흥선대원군의 죽음과 동년 12월 독립협회의 해산 등 역사적 사건이 이어지는 정국은 당시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대동결속의 절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다.

60) 오환숙, 앞의 책, 441~444쪽. *정재성, 『荀齋文集』 권제7. 〈寄國民大演說會書〉 〈抵統監府書〉 〈諭鄉道人士書〉 참조. *19세기 말엽에 정재성과 같은 뜻을 가졌던 인사로 은진인 임태희(林泰熙, 1851~1901)가 있었다. 범국회 후손은 아니나 국운을 되돌리려고 노력한 거창 사람이었다. 『鶴庵遺稿』 〈鄉約序文〉 참조.

61) 조사 결과 매년 모임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거의 친목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2. 혼맥과 학맥의 지속

병자호란 이후 동계가 은거함으로써 범국회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1636년 이후 264년 만에 다시 모였던 17명의 제현⁶²⁾ 후손 간에는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⁶³⁾

동계의 3남 昌謨의 아들인 岐胤은 동계 제자 허목의 딸과 혼인을 했고, 딸은 조정립의 손자 조하현과 혼인했다.

조정립의 부친 조응인은 남명과 절친했던 황강 이희안의 외손녀 전의 이씨와 혼인했는데, 조응인-조정립-조시량-조하전-조항-조성좌-조정좌로 대를 잇는 과정에서 안동의 풍천 유씨, 진양 하씨 등과 혼맥을 이었다.

정백은 정온의 아우로 양자로 나가서 동계 부친 역양공의 종형인 信老의 후사가 되었다.

신순몽은 진사였던 八溪人 정평의 딸과 혼인하여 일찍이 동계의 일족인 팔계 정씨의 사위가 되었다.

문성후는 모계 문위의 아들로서 정온의 종제인 鄭紐의 손자 鄭岐鳳을 사위로 맞아들였다.

변창후는 성산인 李鸞瑞의 사위였고, 범국회 계원 光州人 李鸞美는 변창후와 처남 매부지간이었다.

김상견은 임진부의 조카사위로서 가조 일부리에 살면서 북상의 은진 林門과 혼맥을 이었다.

조시량은 조정립의 장남으로서 그의 차남 조하현이 동계의 3남 창모를 사위로 맞음으로써 동계 가문과 혼맥을 이루었다.

상산인 김익건은 김상견의 아우로서 문성후의 딸과 혼인하여 모계 문위의 손서가 되었다.

최후원은 동계의 조카 昌世의 딸과 혼인을 하여 동계 가문과 혼맥을

62) 1636년 원안 21명에서 조정생·조시일이 빠졌고, 이호와 광흥규는 기록이 없으며 ‘북안’에도 후손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로는 17명의 제현 후손이 속계하였다.

63) 정홍식, 『17세기 서부 경남 선비들 모임에 관한 연구』-거창군 용산범국회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15, 37~39쪽.

이었다.

이봉일은 아들 이수장을 상산인 김여필의 딸과 혼인을 시킴으로써 상산 김씨 가문과 혼맥을 이었다.

신여량은 외가가 팔계 정씨 가문이어서 자연히 八溪 정씨 가문과 혼맥이 이루어져 있었다. 다만 이호, 광흥규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혼인관계를 알 수가 없고, 정필달 이응백은 계원 간 혼맥이 보이지 않았다.

학맥으로는 정필달이 용산재에서 문성후와 함께 김천일에게 학문을 전수하였고, 김익견과 석강재에서 경암 문동도, 백회 이일, 종모당 최윤정을 가르쳤다. 특히 경암 문동도는 김익견 문하에서 수학하여 추천으로 후릉 참봉, 세자익위사부술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⁶⁴⁾

김천일은 동계와 정필달에게 수학하고 卞惟漢·林東翊·金一重에게 전하였고,⁶⁵⁾ 임진부는 동계와 文緯에게 사사 받고 다시 林汝栢·鄭榮振에게 배움을 전수하였고, 문위에게 학문을 익힌 변창후·이응백은 조정·허목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동계 가문은 昌寧人 조정립의 후손, 南平人 문위의 후손, 平山人 신순몽, 興海人 최후원 등과 직·간접적으로 혼맥을 이루어 혈연관계를 이루었다. 그리고 密陽人 변혼의 후손은 星山人 이난서, 光州人 이난미와 혼맥을 이었고, 商人 김상견은 첨모당의 후손과 상산인 김익견은 남평인 문위의 후손과, 碧珍人 이봉일의 후손은 상산인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써 범국회 계원의 후손끼리 혼맥을 잇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맥은 계회가 중단되었음에도 후손들 간의 혼인을 통하여 우의를 다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계회 회원 간의 관계를 이어온 고리가 혼맥·학맥이었음을 보여주었다.

64) 정홍식, 앞의 논문, 67쪽.

65) 오환숙, 「郷土人物史」, 영일인쇄사, 1993, 12~13쪽.

3. 용산범국회의 의의

2세기 경 중국 민속에서 건강의 의미로 유래된 범국회가 17세기 (1636) 거창의 용산범국회에 와서는 동계를 중심으로 광해군의 실정과 호란에 대응하는 방식에 뜻을 같이하는 사족들과 국화의 절조를 숭상하는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모임이 정치사상적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동계 사후 1728년 영남 무신란의 주역으로 활동한 鄭希亮(?~1728)과 曹聖佐(1696~1728)가 각각 정온과 조정립의 현손이었고, 정희량과 조성좌는 이종 간이었다는 데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인조반정 이후 정인홍의 무고한 죽음으로 남명학파가 큰 타격을 입자 북인들은 남인이나 소론, 또는 노론으로 분열⁶⁶⁾되어 그 세력은 이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약화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동계가 은거하자 계획은 중단되었으나 혈연적 혼맥과 학문적 연결은 지속되고 있어서 용산범국회는 학문과 혼맥을 바탕으로 한 관계공동체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용산범국회가 비록 지주제를 전개하여 토지 소유와 각종 부역 부담 등의 사회구조의 모순적 성격을 띠고 농민을 압박하던 洞契⁶⁷⁾는 아니었으나 국내외적으로 어렵던 1898년을 기점으로 士族의 후예로서 기념물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팔송의 후손 정재성이 일제강점기에 범국회 모임을 속개한 것은 단순히 선조를 추모하는 후손 집단이라는 개념을 넘어 범국회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에 맞서 결속하려는 사회운동의 의도를 표출하고 있어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1996년과 2013년에 열린 현대적 모임으로 접어들면서 회원들의 수는 점차 확대되고, 회원의 거주지는 전국을 넘어 국외까지 확산되었다. 정치색과 회원 간의 학연과 혈연의식이 점차 열어지면서 선조를 추모하는

66) 정현섭,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의 동향과 河洛의 역할」, 『남명학연구』 25집, 경상대 남명문화연구소, 2008, 15쪽.

67) 김인길, 「조선후기 鄕村社會統制策의 위기」 - 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 『진단학보』 58집, 진단학회, 1984, 102쪽.

친목 단체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획의 시기와 장소가 비록 옛날과 달라졌지만 후손이 선조의 모임을 기리는 정신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다.

V. 마치며

이 연구는 범국회의 유래와 거창 용산범국회의 전개과정을 탐색하여 지역 사족들의 관계 유지와 문화 형성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도달점으로 삼은 것이다.

범국회의 유래는 2~3세기 경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높은 곳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신 것을 계기로 해서 4~5세기 도연명에 와서 은일과 절조의 의미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경덕왕 때(765) 중양절을 지켰고, 고려시대에 와서는 문인들이 국화를 은일과 절조의 의미로 문학작품을 창작하였고, 조선시대 16~17세기에는 오상고절의 이미지로 정착되어 문인화나 도자기에 국화가 사군자의 하나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범국회를 결성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다. 광해군의 실정과 호란을 당하여 대응하는 방식에서 동계와 뜻을 같이하는 지역 사족들이 교류하고 있었다는 점, 62세 때 모친상을 당하여 1630년부터 용산 선영 아래서 시묘하며 후학을 지도하며 학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 참여자들이 친족이거나 인척 관계였으며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혼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1636년 9월 9일에 용산정과 낙모대에서 5개 군의 사족 21명이 모여 비로소 용산범국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항복이 결정되자 동계는 자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낙향하였다. 이후 동계가 모리재에서 은거하다 생을 마치자 용산범국회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후손들의 혼맥과 학맥은 병자호란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국화의 절개를 상징하는 범국회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은 1898년부터였

다. 국내외적으로 정국이 혼란하고 국권을 침탈하려는 외세에 위협을 느껴 계원 간의 재결속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 모임 재개의 동기였다. 그래서 1900년에 續契를 하였고, 1941년에는 회원수가 405명이었다가 1996년에는 회원수가 643명으로 늘어났다. 거주지는 영남권을 벗어나 전국권과 해외로 확산 되었다. 이후 매년 중앙절이라는 시기와 용산이란 장소를 벗어나 친목을 위한 모임으로 매년 회합하고 있다.

용산범국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정치사상적 공동체의 성격, 둘째로 혼맥과 학문의 관계공동체적 의미, 셋째로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성격, 넷째로 1996년 이후 선조를 추모하는 친목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계회의 시기와 장소가 비록 옛날과 달라졌으나 강신회를 하면서 선조를 추모하려는 마음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다.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자료 및 단행본

- 김매순(1819), 「沔陽歲時記」 9월 조.
도연명, 『陶靖節集』 1권 〈飲酒〉.
杜甫(1992), 『全唐詩』 7책 216권, 中華書局, 2256쪽.
房玄齡 외, 『晉書』 9책 98권 〈孟嘉傳〉, 中華書局, 1993, 2581쪽.
변창후, 『月潭先生文集』 〈연보〉 46세 조, 1961, 5쪽.
薛居正 외, 『舊五代史』 138권, 列傳2, 新羅 조.
蕭統 엮음, 『文選』 4책 33권 騷下 〈漁父〉, 上海古籍出版社, 1999, 1532쪽.
송재록, 「중국의 중앙절」, 『한글한자문화』 207호,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16, 52쪽.
신은경, 『風流』, 보고사, 1999, 68~81쪽.
吳均의 「續齋諧記」 桓景 조.
오환숙, 「鄉儒集과 鄉土史料」, 거창문화원, 2000, 27~28쪽.
應劭, 「風俗通」.
이상필,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2003, 159~160쪽.
이영덕 간 / 정종필 씀, 「古文書集成」 23권 〈龍泉精舍事蹟統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838쪽.
一然, 『三國遺事』 2권 紀異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조.
임태희, 『鶴庵遺稿』.
전봉수, 『吾山文集』 6권 序 〈龍山泛菊契複案序〉, 1966.
정은, 『동계선생문집』 부록 연보.
정재성, 『苟齋文集』 7권.
鍾嶸 저 / 徐達 역주, 『詩品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1, 97~99쪽.
韓廣澤李若巖, 『中國古代詩歌與節日習俗』, 天津人民出版社, 1992, 235쪽.
홍석모,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9월 9일 조, 1849.

2. 논문

- 김인걸, 「조선후기 鄕村社會統制策의 위기」 - 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 『진단학보』 58집, 진단학회, 1984, 102쪽.
- 金眞, 「韓國和陶〈飲酒〉詩的‘菊’意象」, 『淵民學志』 23집, 연민학회, 2015, 179쪽.
-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출판부, 1985, 309쪽.
- 김학수, 「桐溪 鄭蘊의 學脈」, 『남명학보』 4호, 남명학회, 2005, 128~131쪽.
- 박병련, 「남평학과 영남 강우 강안지역 사림의 동향」, 『국학연구』 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35쪽.
- 상기숙, 「中國 民俗 文獻을 통해본 明代 歲時風俗 研究」, 『동방학』 34호, 한서대 동양고전 연구소, 2016, 485~486쪽.
- 송용준, 「도연명 시에 나타난 ‘술’의 의미」, 『인문논총』 65집,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1, 324~325쪽.
- 송희준, 「동계 정온의 학통과 학문사상」, 『영남학』 26집,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소, 2014, 71~75쪽.
- 이동재, 「한국 한시에 나타난 국화의 의미」, 『東方漢文學』 56집, 동방한문학회, 2013, 251~252쪽.
- 이선옥, 「朝鮮時代 菊花圖의 展開過程과 變化要因」, 『역사학연구』 32집, 호남사학회, 2008, 157쪽.
- 정성마唐田, 「한중 풍류사상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풍류의 특징」, 『한국예술연구』 13집,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6, 23~28쪽.
- 정현섭,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의 동향과 河洛의 역할」, 『남명학연구』 25집, 경상대 남명문화연구소, 2008, 15쪽.
- 정홍식, 『17세기 서부 경남 선비들 모임에 관한 연구』 -거창군 용산범국회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15, 37~39쪽.
- 최광식, 「문헌상으로 본 신라의 세시풍속」, 『신라사학보』 47집, 신라사학회, 2019, 174~175쪽.
- 최은정, 「高麗唐 문인의 중앙절 登高詩 비교 연구」,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6, 275쪽.
- 최은정, 「高麗時期 重陽節 관련 漢詩의 중국 고전시 수용 양상 연구」, 『中國學報』 82권, 韓國中國學會, 2017, 268~269쪽.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of Beomgukhui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Geochang Yongsan Beomgukhui

Park, Ki-yong

The origin of Double Ninth Day(重陽節) Beomgukhui began around the 2nd-3rd centuries in China when people climbed mountains to drink hrysanthemum wine to pray for health. Then, it was until the 4-5th centuries that the meaning of chrysanthemum changed to seclusion because of Tao Yuanming(陶淵明). The records of Double Ninth Day first appeared in Korea during the reign of King Gyeongdeok(景德王) of Silla(765). During the Goryeo Dynasty, chrysanthemums were used by literati to mean seclusion and moderation, and during the 16-17th centuries of the Joseon Dynasty, they were mostly used in paintings as images of incision.

There are several motives why the Yongsan Beomgukhui was formed. First, Donggye(桐溪) was working with local Nammyronghakpa(南溟學派) aristocrats to cope with the Manchu war and the misgoverment of the Gwanghaegun(光海君). Second, since 1630, when his mother died at his age of 62, he had mourned at the graves of his mother in Yongsan, training junior scholars and forming academic network. Third, people gathered there were relatives by blood or marriage. As a result, on September 9, 1636, twentyone

noblemen from five villages gathered at Nakmodae(落帽臺) to form Yongsan Beomgukhui.

Later, Donggye died in Morijae(某里齋), Buksang(北上), Yongsan Beomgukhui was also suspended. However, their descendants' connection through marriage and academic genealogy continued even after then.

The move to reopen Beomgukhui had been in place since 1898.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ir descendants decided to unite again, feeling threatened by the foreign forces which seemed to have intention to violate Joseon's national sovereignty as well as Joseon's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situation in great disorder. Thus, the meeting was resumed in 1900. In 1941, they held a meeting and made a list of members; a total number was 405. Then, the number of registered members increased to 643 in 1996. Besides, the members' residences spread from the center of Yeongnam area to overseas.

Yongsan Beomgukhui has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it served as a political and ideological community. Second, it was a group sharing a common destiny with academic and blood ties. Third, it was a historical and cultural community to unite against foreign forces at the end of 19th, when their descents resumed the meeting. Fourth, it changed like a social group after 1996.

keywords :

Donggye, Nammyronghakpa, Yongsan Beomgukhui, Double Ninth Day, marriage and academic genealogy.

